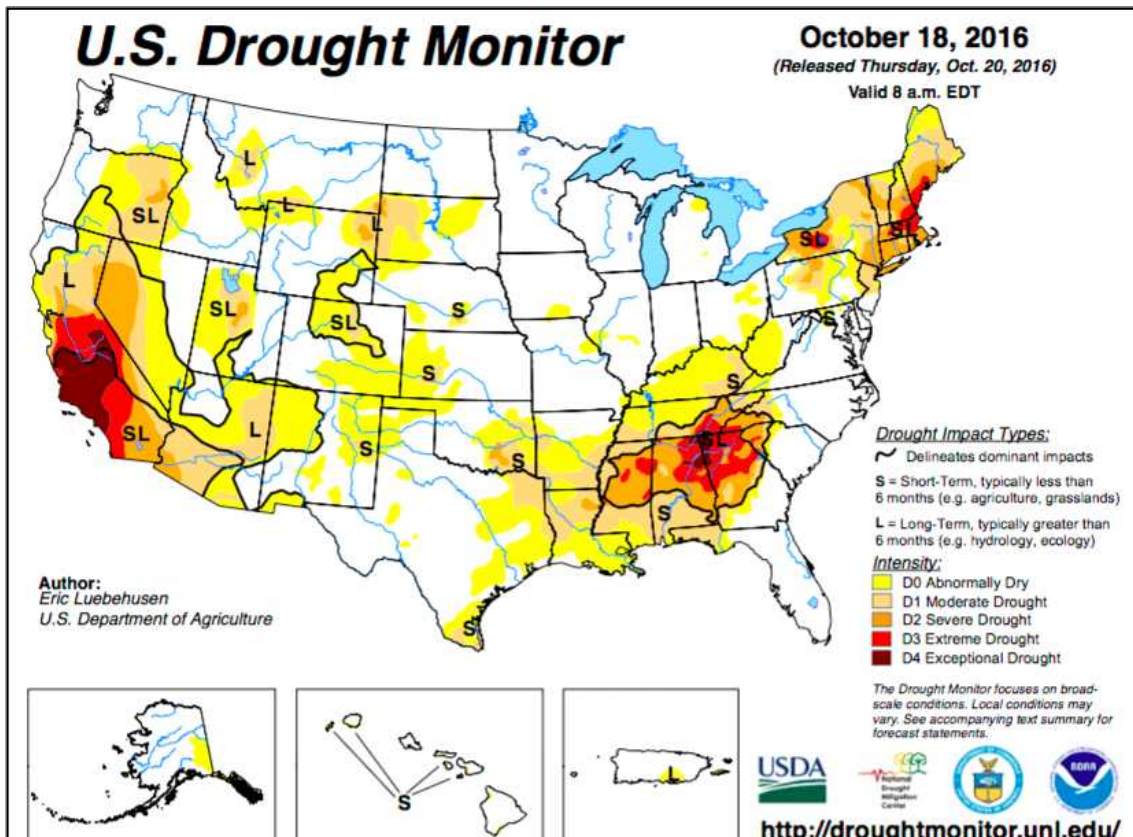


10월 27일 USDA 기후작황보고서(Volume 103, No. 43)

□ 미국 기후 현황(10/16~10/22)

허리케인이 지나간 캐롤라이나 동부에서는 대체적으로 맑은 날씨를 보였고 중서부, 남동부, 남서부 등에서도 맑은 날씨가 이어진 가운데 농작업이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태평양 연안 북서부 일대와 미시시피 강 중류에서부터 북동부에 이르는 지역에서는 비가 내렸다. 캘리포니아 일대에서는 제법 많은 양의 비가 내렸고, 썬에라 네바다 산맥 중부에서는 눈이 내렸다. 중서부 일대에서는 기온이 내려가기는 했지만 여전히 대부분의 지역에서 옥수수과 대두 수확작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미시시피 강에서부터 오대호 남부 일대에 이르는 지역에서는 주 후반으로 가면서 비가 내려 농작업이 지연되었다. 남동부 내륙에서는 비가 거의 내리지 않았고 늦더위가 일시적으로 기승을 부리고 있다. 캘리포니아 남부에서부터 슈페이어 호수에 이르는 지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지역에서 평년에 비해 따뜻한 기온을 보이고 있다. 오하이오 및 대서양 연안 중북부, 뉴잉글랜드 남부에서는 기온이 평년에 비해 최소 10°F 이상 높았다.



□ 농업 현황 요약(10/17~10/23)

대부분의 지역에서 기온이 평년에 비해 높았고, 북동부에서는 기온이 평년에 비해 최소 9°F 이상 높았다. 북서부에서는 예외적으로 기온이 평년이 비해 조금 낮았다. 태평양 연안 북서부 및 미주리 중부, 뉴잉글랜드 등에서는 비가 내렸고, 뉴욕, 워싱턴, 오레곤 등에서는 강우량이 5인치 이상을 기록했다. 그 밖의 지역에서는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였다.

■ 옥수수

10월 23일 기준, 전국 수확률은 61%이며, 이는 지난 해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는 9% 낮은 수치이고 직전 5년 평균과 비교했을 때에도 약간 낮은 수치이다. 중서부에서는 맑고 따뜻한 날씨 덕분에 수확작업이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아이오와, 미네소타에서는 지난 한 주간 수확률이 각각 19%p, 24%p 증가했다.

■ 대두

지난 10월 23일 기준, 전국 수확률은 76%였으며, 이는 지난 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는 8%p 낮고, 직전 5년 평균과 비교했을 때에는 동일한 수치이다. 18개 주 가운데 13개 주에서 지난 한 주간 수확률이 10%p 이상 증가했다.

■ 겨울밀

10월 23일 기준, 전국 파종률은 79%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지난 해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는 2%p 낮은 수치이고, 직전 5년 평균과 비교했을 때에도 3%p 낮은 수치이다. 콜로라도, 네브라스카, 사우스 다코타에서는 파종작업이 종료되었다. 발아가 시작된 지역의 비율은 60%이며, 이는 지난 해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는 2%p 앞서고 직전 5년 평균과 비교했을 때에도 2%p 앞서는 수치이다. 일리노이, 인디애나, 오하이오 등에서는 지난 한 주간 발아율이 24%p 이상 증가했다. 응답자 가운데 59%가 생육상황이 좋거나 매우 좋다고 응답했다.

■ 면화

10월 23일 기준, 전국적으로 면화송이가 떨어진 지역의 비율은 93%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는 동일한 수치이고 직전 5년 평균과 비교했을 때에는 약간 앞서는 수치이다. 현재까지의 수확률은 39%이며, 이는 지난 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동일한 수치이고 직전 5년 평균과 비교했을 때에는 2%p 앞서는 수치이다. 앨라배마, 알칸사스, 미주리, 테네시 등에서는 지난 한 주간 수확률이 20%p 이상 증가했다. 전체 응답자의 48%가 생육상황이 매우 좋다고 응답했으며, 이는 지난주와 비교했을 때에는 약간 높은 수치이고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에도 약간 높은 수치이다.

■ 쌀

10월 23일 기준, 전체 수확률은 97%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지난 해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에는 동일한 수치이고, 직전 5년 평균에 비해서는 5%p 높은 수치이다. 캘리포니아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수확작업이 종료되었다.



□ 세계 기후 현황(10/16~10/22)

■ 유럽: 스페인, 포르투갈에서는 2~20mm 내외의 비가 내렸다. 중부와 동부 유럽 일대에서는 저기압이 형성되면서 10~50mm 내외의 비가 독일 및 남부와 동부 유럽 일대에 내렸다. 영국과 프랑스 북부에서도 10~40mm 내외의 비가 내렸다. 하지만 프랑스의 경우, 나머지 지역에서는 비가 거의 내리지 않았다. 중부와 서부 주요 농업지역에서는 지난 90일 간 내린 비의 양이 평년의 50%에 그치고 있고, 이 때문에 최근 파종작업이 진행된 겨울밀과 유채의 발아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부분의 지역에서 기온은 평년 수준을 유지한 가운데, 스페인에서는 기온이 평년에 비해 3°C 정도 높았고, 포르투갈에서는 기온이 평년에 비해 4°C 정도 낮았다.

■ 구소련(서부): 몰도바 북부에서부터 벨라루스 서부에 이르는 지역에서는 비가 내렸다. 우크라이나에서는 맑은 날씨가 이어진 가운데 해바라기와 옥수수의 수확작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었다. 남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기온이 평년에 비해 3~6°C 정도 낮은 가운데 밤사이에는 기온이 영하로 내려가기도 했다. 러시아 중부와 우크라이나 북부에서는 기온이 평년에 비해 5°C 정도 낮고, 흑해 연안 국가들의 경우 기온이 평년에 비해 5°C 정도 높아 대부분의 작물이 휴면기에는 접어들지 않았다.

■ 동아시아: 주 후반 태풍 Haima가 중국 남동부에 접근하면서 세력이 약해지기는 했지만, 풍속은 65노트 이상을 기록했고 중심 최고 풍속은 145노트로 기록되기도 했다. 태풍이 소멸된 이후에도 남아있던 구름의 영향으로 중국 남부와 양쯔강 일대에서는 25~100mm 내외의 비가 내렸다. 중국 북부 평원 일대에서는 10~25mm 내외의 비가 내렸다. 남부에서는 비로 인해 쌀 수확작업이 다소 지연되었다. 태풍의 영향으로 중국 남부 일대에서는 기온이 평년에 비해 6°C 정도 높았다.

■ 호주: 퀸즐랜드 남부와 뉴 사우스 웨일즈 북부에서는 10~30mm 내외의 비가 내렸지만, 이번 비로 여름작물 파종작업과 겨울밀 수확작업이 다소 지연되었다. 뉴 사우스 웨일즈 남부에서도 10~30mm 내외의 비가 내렸다. 서호주 등 그 밖의 밀 재배지역에서도 비가 흩뿌리는 가운데 강우량은 1~10mm 내외를 기록했고, 밀과 보리, 캐놀라 수확전망은 매우 밝은 상황이다. 서부와 남부 일대에서는 기온이 평년에 비해 1~3°C 정도 낮았고, 동부에서는 기온이 평년 수준을 유지했다.

■ 아르헨티나: La Pampa, Cordoba, Corrientes 등에서는 25~100mm 내외의 비가 내렸다. Cordoba에서는 올해 처음으로 파종에 도움이 되는 정도의 비가 내렸다. 이들 지역에서는 기온이 평년에 비해 3°C 정도 낮았지만, 기온이 영하권으로 내려가지는 않았다. Buenos Aires, La Pampa 북부 및 Cordoba 남부에서는 낮 최고기온이 20°C 초반까지 올랐고, Formosa 등 북부 일대에서는 낮 최고기온이 30°C 이상 올랐다. 아르헨티나 농림부에

따르면, 10월 20일 기준 해바라기의 파종률은 40%인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지난 해 같은 기간에 비해 15%p 높은 수치이다.

■ 브라질: Rio de Grande do Sul 에서는 100~200mm 내외의 비가 내렸고, Minas Gerais에서도 25mm가 넘는 비가 내렸다. Rio de Grande do Sul 주정부 보고서에 따르면 10월 20일 기준 밀 수확률은 5%인 것으로 나타났다. Mato Grosso에서는 10mm 미만의 비가 내렸고, 낮 최고기온은 40°C까지 올랐다. 북동부 내륙지역에서는 맑고 따뜻한 날씨를 보인 가운데 강우량은 10mm 미만을 기록했다. 이 지역에서는 대두 파종작업이 첫 비가 내린 이후부터 시작된다.